진우 스님, 이 대통령에 "마음 안보" 강조

1월 12일,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국민통합 위해 종교계 지혜 경청
진우 스님 "명상 등 평안에 앞장"
이 대통령 "화합에 역할 해달라"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국민 마음 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이날 청와대 본관 1층 인왕실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표로 이같이 발언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해를 맞아 국민통합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상생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종교계의 지혜와 역량을 경청하고자 마련됐다.

진우 스님은 "우리 사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초저출산, 고령화, 낮은 행복지수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국가 안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 안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마음이 깊이 지쳐있다는 신호를 해결하지 못하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성취만으로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제도와 정책으로 삶의 토대를 책임진다면 우리 종교계는 국민의 마음의 평안과 또 정신적 안정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의 평화와 평안을 바라는 마음은 대통령님과 저희(종교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저희 종교 지도자들도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되, 명상과 마음 치유와 같은 공통의 영역에서는 힘을 모으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위기관리와 국정운영에 대해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짧은 기간 안에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았다"며 "초기에는 여러 우려가 있었지만, 이제는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균형 잡힌 판단과 책임 있는 실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높게 평가했다.

진우 스님의 '마음 안보'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하던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었다"며 "대통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인데,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고 종교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2일 청와대 본관 1층 인왕실에서 종교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를 열고 종교계의 지혜를 경청했다. 사진 제공=청와대

이 대통령은 "원래 종교의 본질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에서 함께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역할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이 주신 말씀 잘 새겨듣겠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찬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신천지와 통일교 문제,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산, 지방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등 다양한 국정·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찬에는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김정석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고경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정순택 서울대교구 대주교,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박인준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특정 종교 광화문집회 방치, 헌정 질서 훼손"

태고종 1월 11일 입장문 발표
"특정 종교, 광화문 점유 시위"
서울시·종로구 등이 특혜 제공"

1년 넘게 이어지는 특정 종교의 광화문 집회·시위에 대해, 태고종이 이를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찰 등이 종교편향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11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정 종교단체가 광화문대로를 수년간 상시적으로 점유하며 사실상 사유화해 온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고 보호해 온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의 노골적인 종교 편향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공공 공간인 광화문대로는 특정 종교나 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태고종은 "현재 광화문 일대는 특정 종교단체가 매 주말마다 대규모 행사를 반복적으로 개최하며 상시 점거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며 "이는 공공장소의 이용 질서를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찰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집회'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특정 종교의 신봉을 조장하는 특혜를 제공하며 보호막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공권력이 특정 종교의 장기·반복적 공공장소 점유를 용인하고 지원해 왔다면 이는 헌법상 중립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단순한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헌정 질서 훼손"이라고 힐난했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태고종은 "일반 시민과 단체는 광화문대로에서 단 하루의 행사조차 개최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사전협의와 막대한 비용 부담, 엄격한 조건과 제한을 감내해야 한다"면서 "특정 종교단체는 동일한 공간에서 수년간 매주말 행사를 이어오면서도 실질적인 제약없이 보호를 받았다.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행정 특혜이며, 공권력의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태고종은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에 특정 종교단체에 제공되어 온 공공장소 사용 특혜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 공개 및 해명과 책임자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또한 종교·이념·단체 불문 동일 적용 공공장소 사용 원칙 명문화와 광화문대로가 특정 종교에 의해 상시 점유되는 구조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태고종은 "공공 공간은 신념을 강요하거나 독점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며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이 헌법이 요구하는 행정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공권력 스스로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중일 기자

2026년 첫 장성 인사…'불자 장군' 30명

군종교구, 불자 소·준 진급 파악
법원 스님 "자비로 국가 수호"

정부가 1월 9일 단행한 장성 인사에서 불자 준장 13명이 소장으로 진급해 각 군 주요 지휘관 및 핵심 직위에 보임됐고, 불자 대령 17명은 준장으로 진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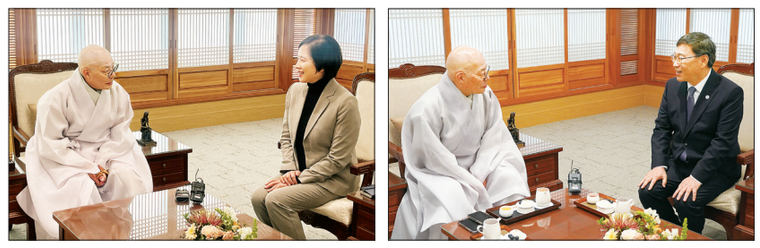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법원 스님)는 1월 13일 불자 장성 인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인사에서 준장 41명을 소장으로(육군 27명, 해군 7명, 공군 6명, 해병 1명), 대령 77명을 준장으로(육군 53명, 해군 10명, 공군 11명, 해병 3명) 진급·보직했다. 이 가운데 군종특별교구는 불자 장성은 소장 13명(육군 7명·해군 2명·공군 3명·해병 1명), 준장 17명(육군 12명, 해군 2명, 공군 1명, 해병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인사는 육군사관학교 외 출신 및 공군 비조종 병과 인원이 높은 비중으로 선발되는 등 인사의 다양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것이 군종특별교구 측의 설명이다.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흔들림 없는 신심과 청정한 품행, 공동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소임을 다해 온 불자 장군들의 진급은 군과 불교계 모두의 큰 경사"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군 현장에서 이어져 온 군포교의 결실이자, 불교적 가치가 국방·안보의 핵심 영역에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뜻깊은 사례"라며 "새로 중책을 맡은 불자 장군들이 지혜와 자비의 정신으로 조직을 이끌어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를 원만히 수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사진 왼쪽)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잇따라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시도교육감 도전자들 "선명상 교육" 공감

유은혜·정근식, 진우 스님 예방
마음교육 중요성 생각 공유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감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차례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선명상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1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이날 유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동들의 정서 회복과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계종 선명상위원 혜주 스님으로부터 선명상을 기반으로 한 교육교재 설명을 유심히 들은 유 전 장관은 "선명상 프로그램들은 성장 과정 단계에 맞는 치유프로그램으로 교육운영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어 보이는 교재"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마음 안보'를 강조했다. 스님은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민들의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어릴 때부터 자율성과 내면의 안정감을 키울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월 15일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진우 스님과 마음교육과 평정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진우 스님은 정 교육감에게 "어릴 때부터 스스로를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을 갖추는 훈련을 해야 한다"면서 "선명상은 마음을 조절하는 훈련으로, 공교육 현장에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원장 스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학생들이 마음에 평정심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은호 기자

감동, 즐거움, 쓸모 있는 인생수업을 위한 불교 강의

나를 비춰보는 가장 치열한 자기관리의 거울
2년제 한글 불교전문강원 (일반 · 심화과정)

강 좌 명		강의주제 및 교재	담당교수
1학년 (26년)	원각경 1학기(3월~6월)	인생이란 무엇인가? – 원각경경 · 현담 –	신규탁 (연세대 명예교수)
	기신론 2학기(7월~10월)	종교적 믿음의 본바탕 – 대승기신론 의기 –	〃
	능엄경 3학기(11월~2월)	명상의 근본 줄기와 총정리 –수능엄경주해 –	화광스님 (월운 강백 제자)
2학년 (27년)	금강경 1학기(3월~6월)	손에 잡히는 금강경 – 금강경 찬요 –	신규탁
	화엄경 2학기(7월~10월)	진리의 종합선물세트 – 주화엄법계관문 – – 화엄경나들이 –	〃
	선문염송 3학기(11월~2월)	선체험과 문학의 향기 – 정선선문염송설화 –	〃

◇ 개강일시 : 3월 4일(수) 14:00(심화과정), 19:00(일반과정)
◇ 모집정원 : 심화과정 20명, 일반과정 20명
◇ 수 강 료 : 학기당 24만원

옛 스승들에게 배우는 마음경영 기술
선어록–지혜의 족보를 찾아보는 강의

	강 좌 명	교재 및 저자	담당교수
26년	마음 뿌리 찾기–위대한 스승들 1학기(3월~6월)	선문사자승습도: 규봉	신규탁
	한계를 뛰어넘는 몰입의 기술 2학기(7월~10월)	서장; 대혜	화광스님
	흔들리는 일상에서 마음 지키는 법 3학기(11월~2월)	서장; 대혜	화광스님
27년	허물을 벗고 나답게 사는 첫발 1학기(3월~6월)	선요;고봉	신규탁
	인생의 주인이되는 결정적 지혜 2학기(7월~10월)	선요; 고봉	신규탁
	다섯 거장에게 배우는 유연한 사고법 3학기(11월~2월)	선문오종강요;지안	신규탁

◇ 개강일시 : 3월 10일(화) 19:00
◇ 수 강 료 : 1학기 24만원(월 6만원)
◇ 강의영상자료 제공 : 개인별 이메일로 수업 후 제공

44년의 전통, 꿋꿋하게 지켜온 실천불교
3월 개강 – 특별 강좌

과목명	담당교수(강사)	개강일시	수강료
신법화론 (강의 영상자료 제공)	최봉수	3월 5일(목) 11:00 (기간: 3월~6월)	1개월 10만원
알고싶은 불교, 새로운 기본교리	신규탁	3월 7일(토)14:00 (기간: 3월~5월)	3개월 5만원
전통범패의식	인각 스님	3월 10일(화)14:00 (1학기:3월~7월)	5개월 50만원
불교미술	법인 스님	3월 4일 10:30 (1학기:3월~7월)	1학기 85만원
민화	문미영	3월 6일(금) 10:00 1학기: 3월~6월	1학기 60만원
불교사상과 예술의 세계	강여울	3월 5일(목)14:00 (기간:3월~5월)	1개월 6만원
한글불교의식	문종순	3월 14일(토)13:00 (1학기:3월~7월)	1학기 30만원
행운을 부르는 인상학	김계화	3월 5일(목)15:00 (기간: 3월~5월)	1개월 5만원

불교교육 전법도량 (사단법인)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대표전화: 02–732–1206 / (우)0315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